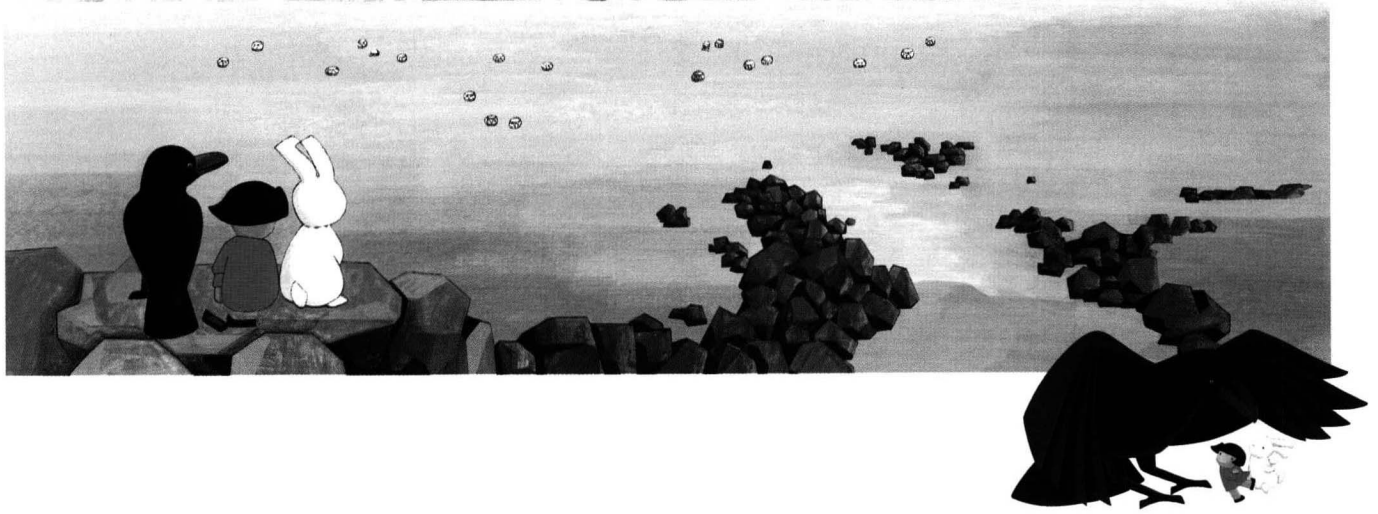


어린이를 위한...

자연 아래,
자연적인 재료로,
자연의 심상을 담는다



“나는 이 책을 그리면서 슬픔을 배웠다. 신발 신고 집 나서는 아이를 보면서부터 슬픔이 잦아들었다. 그래서 오히려 보석처럼 아름답게 그리고 싶었다. 너무 슬픈데 슬프지 않게 슬픔을 그리는 방법을 배웠다.”

권윤덕 씨(43)의 신작《시리둥둥 거미둥둥》에 실린 작가의 말 중 한 대목이다. 이 책은 여느 어린이책과는 다르게 ‘슬픔’과 ‘외로움’의 정서를 바탕으로 깔고 있다. 이유는 책 속에 등장하는 아이가 물질 나간 엄마를 열심히 기다리고 있다는 데 있다. 권윤덕 씨는 이 ‘기다림’을 꼬리따기 노래 형식을 빌어 표현했다. 꼬리따기 노래란 “빨간 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와 같은 형식의 노래다.

“제주도 여성들은 직접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부분의 해녀들이 물질을 하러 아침에 들어가면 저녁에 오는데 아침을 먹고 나가면 토할 수 있으니까 밥을 먹지 않고 바다로 나간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빈 속으로 나갔으면서도 욕심을 내서 더 따라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고... 이 책은 이렇게 고되게 살아가는 제주 여성의 삶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제주도로 취재 갔을 당시 돌담 옆을 지나가는 아이를 심상 속에서 만났다고 한다. 이 책은 돌담을 서성이면서 하루 종일 엄마를 기다리는 그 아이에게 “더 넓은 세계로 갈 수 있다”고 말하는 희망의 메시지나 다름없다. 권윤덕 씨는 아이에게 친구를 만들어주며 위로해 준다. 그리고 ‘깊은 것은 엄마의 마음’이라는 말로 꼬리따기 노래를 맺으면서 엄마를 통해 슬픔을 치유해 준다.

“이는 단순한 엄마의 의미를 넘어서 특유의 제주 여성 이미지를 담아냅니다. 이 책에는 이처럼 상징적인 의미들이 많습니다. 표지의 돌담 색깔과 본문 속 바닷물 색깔의 변화를 통해서 운율과 박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음악적인 것을 시각적인 언어로 전환시킨 것이죠. 표지부터 등장하는 까마귀와 토끼는 아이와 함께 엄마를 기다려주는 친구로 등장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아이 옆에는 늘 이 친구들이 따라다니고 있죠.”

이렇게 곳곳에 많은 장치들을 숨겨 놓은 한 권의 그림책을 만들기 위해 그는 그 동안 아홉 권의 가제본을 만들었다. 아홉 달 동안 한 달에 한 권씩 다양한 시도를 해보면서 머릿속에 있는 구상들을 현실로 놓고 수정작업을 계속해 온 것이다. 그는 읽을 때마다 새로운 상징 요소들이 발견되는 책을 아이들에게 선사해 주고 싶어한다. 어린이 책 역시 어른 책처럼 장치를 적절하게 섞어 주면서 끊임없는 발견의 즐거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번 보고 영원히 덮어버리는 시시한 책이 되면 안 된다는 책임감을 갖는 이유도 여기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림책 작가로 활동한 지 10년이 다 되어간다.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아이들과 소통하는 코드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말을 거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

“본래 광고 디자인을 하면서 편집 디자인을 배웠습니다. 한글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산돌 글자 은행에서 폰트개발을 하기도 했죠. 그러다가 1987년도에 안양에서 지역미술운동을 하면서 이 역배, 정승각 선생님 너머계로 그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불성사의 주지스님을 통해서 탕화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는 당시 제도적인 미술교육 속에서 태생과 전문 미술교육만을 받아온 전공자들에게 다양하고 자유롭게 사물을 보는 방법을 익혔다는 부러움을 받았다. 그동안 발표했던 책 속에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보다 다양한 그림으로 무언가를 전하는 법을 고민한 흔적들이 담겨 있기도 하다. 특히 아들인 만희의 이름이 등장하는 《만희네 집》은 정통 민화풍 기법으로 생활사를 전해 그림책 분야에서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만희가 없었으면 이 영역은 저와 무관한 영역이 되었을 겁니다. 아이에게 읽어줄 책을 찾다가 《초방책방》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그림책과 외국의 유명한 그림책들을 접했죠. 그러면서 아이가 책을 읽고 자라는 데 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왜 그런 행동이 나오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려고 애썼는데 그림책을 통해서 아이와 이야기



하는 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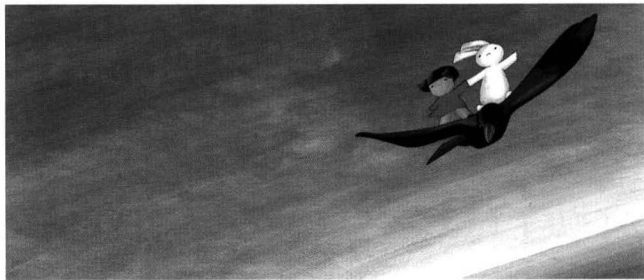
만희의 영향력은 그의 책 '벌레' 시리즈(《씹지 않고 꿀꺽벌레는 정말 안 씹어》 등)에서도 크게 드러난다. 권윤덕 씨의 '벌레 시리즈' 그림은 만희의 스케치에서 빌려온 것이다. 어른들이 보면 '벌미난다'고 하는 이 책을 펴 본 아이들은 '익숙하고 재미있다'는 말을 연신 내뱉는다. 그만큼 아이들과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증명하는 예다. 권윤덕 씨는 이렇게 아이들과 그림으로 대화하는 법을 찾으면서 늘 한 가지 재료를 고집한다. 그의 집에 있는 그림 재료는 모두 동양화 재료들이다.

“동양화 재료만이 갖는 매력이 있습니다. 연구원으로 있는 남편을 따라 중국에서 1년을 지냈는데 거기서 붓으로 사물을 그리는 기본을 처음으로 배웠죠. 붓, 한지 등 동양재료는 자연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은 곧 내 심성을 자연과 일치시키는 것이나 다름없죠.”

그는 동양화 붓에 물감이 스며드는 정도, 붓을 운용하는 경로에 따라서 다양한 묘미가 느껴지는 동양화법의 장점을 다른 재료를 통해서는 느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렇기에 그가 완성하는 그림은 단순한 자연 관찰이나 원근법으로 표현된 그림이 아니다. 그의 그림책은 자연과 일치되는 동양적 표현법, 구도법이다. 자연과 소통하고 그것을 닮아가려는 것, 그 공간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곧 그가 그림을 그리는 방법인 것이다.

“늘 내용에 맞는 형식을 찾아내려고 고민하는데 사실 그 방법만 알아도 누구나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코드를 찾기가 그림 그리기보다 어렵습니다. 그림책은 그림 반, 글 반이 아니라 그림으로 말하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그림으로 주제를 전하는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죠.”

일본에 소개된 《만희네 집》의 띠지에는 재미있는 카피가 적혀 있다. '만희네 집처럼 집 구석구석을 보여주면 도둑이 들어 와서 물건을 다 훔쳐가지 않겠느냐'는 것이 그 내용이다. 특유의 한국적 소재를 담고 있는 그의 첫 작품은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감성, 재료, 소재 등은 우리 것을 사용하지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세계적인 언어로 가능해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이해하는 특수성을 넘어서야죠. 이야기를 만드는 데 모티프는 상관이 없어요. 모티프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들은 《시리동동 거미동동》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는 이 책의 표지에서부터 세 사람의 만남이 무엇일까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먼저 책날개 색깔을 여자아이의 옷 색깔과 같은 색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책 속 바위를 단순한 죽은 바위가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변화하는 바위로 채색하여 표현한 것도 그런 시도들 중 하나다. 권윤덕 씨는 그 속에서도 늘 여자아이의 의미를 그대로 남겨두었다고 말한다. 책에서 사라지지 않는 주황색은 바로 이 외로운 친구를 의미한다.

“책으로 들어가기 전 제 감정까지 고민을 합니다. 단편영화의 예고편을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그림책 작업에서는 코드 발견이 가장 재미있습니다. 감성을 갖고 한 소재에 대한 충동이 일어나야 한 작품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찾아올지는 정말 모르는 것이죠.”

정릉 북한산 자락 아래에서 꼬박 3년을 살았다는 그는 산의 심성을 그림 속에 담아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말한다. 산의 심성을 바라보며 그림을 그리는 엄마 곁에서 만희는 초등학교에서 14세의 중학생으로 어느새 훌쩍 커버렸다. 만희를 보면서 권윤덕 씨는 자연 아래, 자연적인 재료로, 자연과 같은 심성을 아이들에게 전하려고 오늘도 열심히 머릿속에 있는 구상들을 현실로 재현해 본다. 삼각형, 사각형 등 다양한 모양으로 그린 수많은 그림들이 가제본으로 완성된다. 단순한 그림 그리기가 아닌 소통과 대화의 방법찾기. 권윤덕 씨는 오늘도 그렇게 만희를 비롯한 많은 아이들과 자연을 닮은 얼굴로 대화하기를 준비한다. **☞**

취재 김청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